

한국중부발전(주) 남인석 사장 인터뷰

인천화력 3호기 대체 건설 및
1,000MW급 초초임계압 신보령 1,2호기 건설추진에 박차

CF PROFILE

남인석

- 1956년 전남 나주
- 한양대학교 정밀기계공학과 졸업
-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혁신본부
기술혁신평가국 국장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정책국 국장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원장
- 한국중부발전 대표이사 사장



'3P-2012'은 조직과 개인, 최선의 Win-Win 카드

직원들과의 격의 없는 소통을 가장 중요시 하고, 이를 즐기기로 정평이 나 있는 한국중부발전(주)의 최고 수장 남인석 사장. 그가 취임식에서 내놓은 핵심 카드인 '3P(Pride, Professional, Profit)'은 중부발전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모토'로 본사 및 전 사업소에서 가시적인 성과와 실천력을 도출해 나가고 있다.

중부발전이 안고 있는 현안

잘 아시다시피 중부발전은 발전회사로서 노후설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까닭에 타 발전회사와 비교해볼 때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놓여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전소 신규건설이 무엇보다 우선시되고, 또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한전의 고원가 LNG 발전소 축소와 저원가 기저설비 확충정책에 따라 인천화력 3호기 대체건설 및 신보령 1,2호기 건설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천복합 3호기는 기능이 동일한 보령복합 설비의 이설을 통해 투자비를 대폭 절감시키는 한편, 신보령 1,2호기 건설의 경우 2002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개발한 1000MW급 초초임계압(USC; Ultra Super Critical) 원천기술을 적용, 정부의 발전기술 자립화 정책에 부응하고 건설사업권 확보에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서울복합화력발전소의 이전건설은 해당 지자체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전 예정지에는 대표인 명품 친환경발전소 랜드마크를 목표로 건설 및 운영역량을 제고해 나감과 동시에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발전소가 될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의 서울화력발전소 전경

3P로 집약되는 경영전략 제안배경 및 구체적 실천방안

중부발전의 경우 대내외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본분을 다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조직과 개인의 역량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3P-2012'는 지금의 중부발전이 한 단계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매우 유효한 실천방안으로 생각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1월 취임식에서 제안했던 '3P'는 Pride (자긍심), Professional (전문가), Profit (수익, 이익)을 의미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최고지향(Pride), 전문성(Professional) 강화, 수익(Profit)창출, 이 세 가지를 경영 방침으로 정해 전사적으로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가의 전력생산을 담당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전문가다운 업무추진 이것이 바로 회사의 수익과 개인의 이익을 가져다 주는 Win-Win의 길이 될 것이란 당연하고도 깊은 확신을 지니고 있습니다.



3P운동의 실천방안으로 본사 및 사업소별 별도 T/F를 구성하여 사업장 특성에 맞게 전략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기적 점검활동 및 피드백을 통한 활동 촉진과 함께 우수사례 발굴 및 발표회 개최로 전사적인 홍보효과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추진결과를 회사 내부평가에 반영하고 우수 성과창출부서에 포상을 시행함으로써 직원들의 자긍심 고취 및 수익창출에 상당부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가 도출되고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창조적 인재 양성... Bottom-up 방식 조직문화 개선 총력

정부조직과 중부발전과의 차이점을 꼽는다면

제가 사장취임 이후, 중부발전이란 조직에 대해 전반적으로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중부발전의 경우, 핵심 기저발전소인 보령화력을 비롯하여 서울, 인천, 서천, 제주, 양양 등 전국에 걸쳐 골고루 사업소가 분포되어 있고, 직원들 역시 양호한 기본자질을 토대로 다양한 인성과 개성을 발휘하면서 나름대로의 자부심으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다만, 굉장히 조직적이고 위계질서가 있는 안정적인 조직인 반면, 공무원조직보다도 더욱 경직되어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Bottom-up 방식, 횡적으로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조직문화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의무적으로 1년에 한번 이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는 녹색성장산업은?

중부발전은 양양소수력 등 총 13건의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운영 중이며 이 중 보령소수력, 양양풍력·소수력, 강원풍력, 보령 및 서천 태양광을 CDM 사업으로 등록함으로써 연간 43,427톤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강화조력을 비롯하여 익산RDF(폐기물고형연료, Refuse Derived Fuel), 제주풍력 등 전원별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세계 최대 조력발전 사업인 강화조력은 공동 개발을 위하여 2007년 5월 인천시, 강화군, 대우건설컨소시엄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2009년 3월에 타당성 조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최근 조력발전소 건설과 관련, 일부 어민들과 환경단체에서 환경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으나, 중부발전에서는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과 세부적인 조사를 통해 주민들과 환경단체에서 우려하는 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화조력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65만톤의 CO₂저감 효과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의무에 적극 부응하는 한편, 주변 도서지역 연륙화 등 지역주민의 숙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부발전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전략

전 지구적이고 세계적인 글로벌 이슈인 기후변화협약은 화력발전을 주축으로 운영되는 발전회사에게 상당한 부담과 함께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RPS(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 시행으로 중부발전뿐만 아니라 발전회사 전체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한국중부발전의 신재생에너지 개발 전략은 RPS 및 기후변화협약 등 미래의 리스크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지속가능경영”을 달성하고, “한국형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의 개발 및 국산화를 조기에 달성함으로써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중부발전은 현대제철과 부생가스 발전을 추진하고 있는 까닭에 다른 회사보다 2012년에 RPS 달성이 다소 유리한 측면도 있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RPS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향후 2022년까지 기존의 풍력, 태양광, 조력 외에, 폐기물 발전(원주, 익산), 바이오매스 혼소 등의 다양한 신재생에너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추진 중에 있는 중부발전의 신성장동력 사업은

국내 전력산업은 이미 포화상태에 돌입하였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현실적이며 효율적인 대안을 마련, 적극적인 자세로 해외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선진국에 비하여 동남아를 비롯한 개발도상국은 에너지 수요 증가에 따른 전력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그만큼 새로운 발전사업 진출기회가 많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중부발전도 가급적 자본이 투자되지 않는 용역사업과 O&M사업 위주로 사업을 발굴해 나가되 충분한 경제성과 타당성이 있는 사업일 경우, 적극적인 투자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기후변화대응 노력과 정부의 전력산업수출산업화 및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탄소 배출권 확보에 따른 추가수익 창출이 가능한 바이오매스 사업과 수력 CDM 발전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중부발전은 지난 3월 발전사 최초로 인도네시아 Cirebon 민자발전 사업(660MW)에 6억 달러의 해외 자금조달에 성공하여 사업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으며, 또 다른 인도네시아 프로젝트로서 Wampu 수력발전사업(15MW×3기) 등 5건의 해외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중부발전은 현재의 해외사업 매출액 88억 원을 대폭 신장, 2014년까지 4,277억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업수행국가도 4개국에서 11개국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미 있는 청사진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전기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모든 전력인들은 지금까지 전력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RPS제도의 시행이나 국내 전력시장의 포화로 인한 전력시장이 성장한계에 도달한 것도 우리가 당연한 위기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여러분은 우리나라 기업과 각 가정에 전력을 공급하는 주역입니다. 여러분이 생산하는 전기로 경제가 돌아가고 가정이 밝아지고 세상이 더욱 따뜻해지고 있다는 전력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첫 번째로 꼽은 자부심에 더해 프로의식을 가져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에서 지시하고 그 지시에 순응하는 것은 과거의 방식이며, 아마추어 들이 일하는 타입입니다.

프로는 자신의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라도 스스로를 관리해야 합니다. 이런 목표점 설정과 실천이 바로 프로

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고 더 나은 성과를 내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열의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셋째, **청렴의식**을 갖고 청렴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한 번의 실수로 모든 전력인이 애써 쌓아온 깨끗한 기업이미지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됩니다.

청렴의식은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며, 청렴한 마음가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청렴한 생활이 몸에 배도록 생활화하는 것이 전력인으로서 당연한 자세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인생철학과 삶의 지표는

“盡人事待天命” 즉,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자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국 사람과 IQ가 비슷하지만 노벨상이 많이 나오는 명확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어떤 일을 할 때, 자기의 모든 감성과 열정을 다 바쳐 힘닿는 데 까지 일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각오와 자세가 뒷받침되었기에 좋은 결과가 순리적으로 도출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한편, 일을 잘하려 하다 보면 간혹 합법성과 합목적성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만, 저는 합법성을 우선합니다. 절차와 과정이 중요한데 그 중요성을 비율로 표현하자면 7대3정도 될까요.

이는 업무판단의 개인적인 척도라 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만.... 끝으로 삶의 유용한 양식이 될 만한 책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혼창통” 꼭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KEA

대한전기협회 홍보팀